

보도설명자료

(’20. 1. 14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산업부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위해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, 산업부·회계법인·한수원간 회의는 회계법인이 요청한 것으로 경제성평가 보고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기관 의견청취 목적으로 개최된 것임(조선일보, 1.14 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)

- ◇ 산업부는 한수원, 회계법인에 대해 월성1호기 경제성평가의 기준이나 전제를 바꾸라고 압력을 행사하거나 요청한 사실이 없음
- ◇ 1.14일 조선일보 <산업부·한수원...월성 1호기 경제성 1778억원→224억‘둔갑’>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.

1. 기사내용

- ☐ 2018년 5월 11일 산업부와 한수원, 삼덕회계법인이 보고서 초안 검토 회의를 연 뒤 경제성 판단의 기초가 되는 조건들이 대거 바뀔
- ☐ 경제성평가 전제가 갑자기 바뀌었다는 것은 산업부가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강행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- ☐ 상기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
- ☐ 산업부는 한수원, 회계법인에 대해 경제성평가의 기준이나 전제를 바꾸라고 압력을 행사하거나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,
 - 회계법인은 객관적인 기준과 사실에 입각하여 독립적으로 경제성평가 입력변수를 결정하여 분석하였음
- ☐ 산업부, 한수원, 회계법인간 회의는 회계법인이 경제성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기관의 의견청취 목적으로 개최되었음

※ 문의: 서기웅 원전산업정책과장(044-203-5310) / 한진영 사무관 (044-203-5321)